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RA 유지윤



미 증시, 금리 및 유가 약세 전환에도,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 여파로 혼조세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4일(월) 미국 증시는 미 재무부의 TGA 잔고를 활용한 국채 매입 가능성, 대이란 경제제재 발표 등으로 장기물 시장 금리와 유가가 약세를 보였지만, 삼성전자발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 압력, 엔비디아(-2.9%) 실적 경계 심리 등으로 마이크론(-5.9%) 등 반도체주들이 동반 하락세를 보인 여파로 혼조세 마감(다우 +0.3%, S&P500 -0.3%, 나스닥 -0.8%,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7%).

최근 증시의 부담 요인이었던 장기물 금리 급등 사태는 진정되고 있는 모습. 지난주 미 재무부가 바이백 규모를 확대한 데에 이어, 약 9,400억달러 TGA 잔고를 바이백 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금리 상승 속도를 억제하는 장치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TGA 현금활용 시 단기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장기채 매입이 가능해지는 구조로 단기채 발행을 통한 장기채 매입이라는 돌려막기 논란을 중화시킬 수 있는 요인). 미국이 이란 및 제3국을 압박하는 경제 제재를 발표했지만, 중국의 대형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제재는 유보했다는 점이나, 지난주부터 시장에 노출되어 왔던 재료였던 만큼, 실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

물론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 주도주인 반도체주가 재차 취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이기는 함. 다만, 전일 반도체주 약세는 삼성전자발 주가 급락이 다른 반도체주로 전이된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임. 동시에 7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던 엔비디아 주가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이, 주 후반 실적 발표를 앞둔 선제적인 포지션 관리 수요가 엔비디아를 넘어 전반적인 반도체주로 확산된 측면도 존재.

결국, 전일 증시의 약세 압력은 펀더멘털 균열이 아닌, 삼성전자 주주환원 셀온(+일부 단기 실망 매울) 및 엔비디아 실적 경계심리를 앞둔 수급 변동성이 만들어낸 단기적인 요인이었다고 판단. 금리, 유가 등 매크로 변수의 추가 약재 확산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음을 고려 시, 현시점에서 주식 비중을 추가로 낮추는 전략은 지양할 필요.

전일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8.7%)의 주주환원 발표 이후 셀온 여파로 반도체, 보험 등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약세를 보인 반면, 여타 업종 및 중소형주로 순환매가 발생함에 따라 혼조세 마감(코스피 -3.1%, 코스닥 +1.4%).

금일에는 미국 반도체주 조정 선반영 인식 속 미국 금리 급등세 진정, WTI 유가 약세 등 매크로 환경 호전, 전일 급락에 따른 반도체주의 저가 매수세 유입 등에 힘입어 반등을 시도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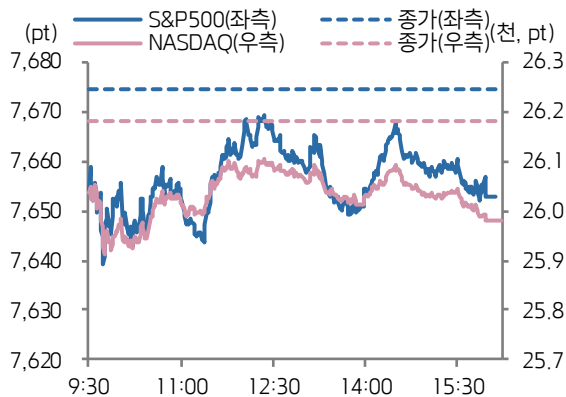
8월 이후 코스피는 중장기 추세선인 120일선(6,870pt대) 부근에서 공방전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일부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반등의 연속성에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는 모습. 그 과정에서 전일 삼성전자의 주가 폭락이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 일단 어제 주가 반응만 놓고 보면, 시장이 삼성전자에 기대했던 것은 배당 확대보다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이었던 것으로 보임. 또 "FCF의 50% 이상"을 제시했던 SK하이닉스에 비해 "FCF 50%"를 제시한 삼성전자가 주주환원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평가도 존재하기는 함.

그러나 삼성전자(90~110조원), SK하이닉스(40조원 + 알파) 모두 절대 규모 관점에서는 증시에 수급 안전판을 부여할 것이라는 전제는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 또 메모리 가격, 이익 컨센서스 등 펀더멘털 약화 신호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 시, 이번 반도체주 급락은 주주환원 기대감의 되돌림(=셀온)으로 해석할 필요.

전일 코스피 급락에도, 하락 종목수가 286개인 반면 상승 종목수가 579개에 달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 8월 한 달(~24일)만 놓고 봐도, “상승 종목수 - 하락 종목수”의 평균 격차가 +91개로 “플러스” 영역에 들어간 점은 지난 6월(-151개), 7월(-34개)에 비해 쏠림 현상이 다분히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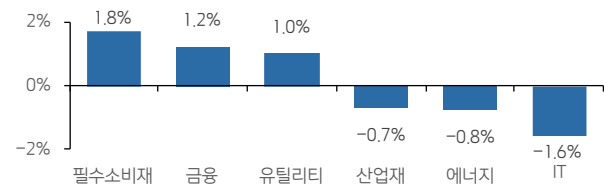
전일 반도체(-6.3%), 보험(-6.8%) 등 8개 업종을 제외한 비철금속(+7.8%), IT가전(+6.0%), 화학(+5.1%) 등 18개 업종의 동반 강세나, 코스닥(+1.8%)과 같이 중소형주의 강세 현상도 마찬가지로. 지난 7월 급락장 당시에는 대부분 업종이 동반 급락했던 투매 현상에 비해, 증시 전반에 걸친 하방 경직성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대목. 이처럼, 최근 상단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전보다 업종 수익률의 온기 확대, 소수 업종 쏠림 현상 완화 등 증시 체질과 내부 체력이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추후에도 반등의 연속성에 무게를 싣고 가는 것이 적절.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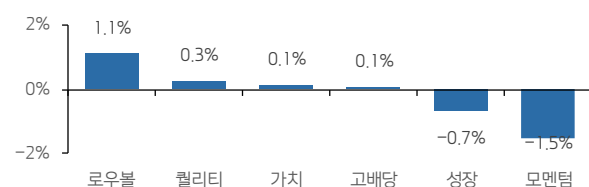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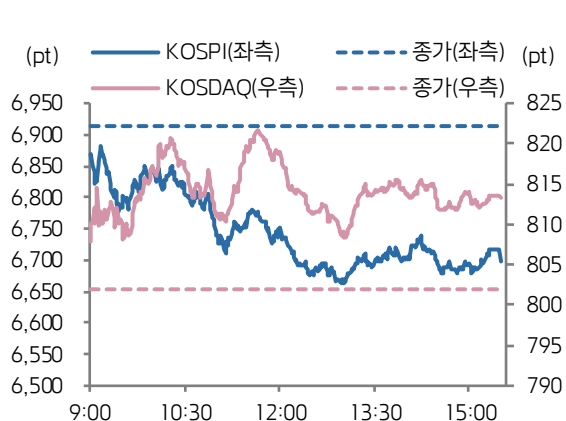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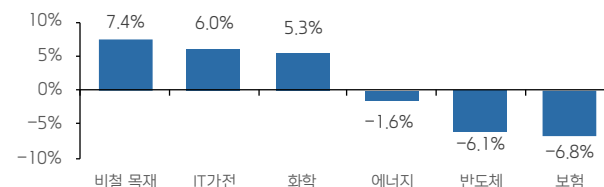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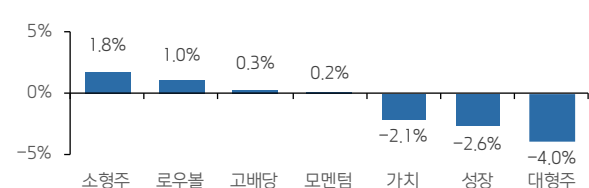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310.34	+0.32%	+14.47%	GM	86.98	-1.08%	+7.45%
마이크로소프트	487.31	+0.84%	+1.4%	일라이릴리	1,246.93	-0.67%	+16.59%
알파벳	348.06	+0.94%	+11.35%	월마트	106.49	+2.69%	-3.81%
메타	559.02	+1.66%	-15.16%	JP모건	356.39	+1.37%	+12.18%
아마존	262.07	+1.33%	+13.54%	엑손모빌	164.05	-0.64%	+39.06%
테슬라	348.95	-3.83%	-22.41%	세브론	203.09	-1.06%	+36.97%
엔비디아	208.48	-2.91%	+11.92%	제너럴일렉트릭	106.49	+2.7%	-3.8%
브로드컴	358.76	-2.63%	+4.04%	캐터필러	811.02	-2.04%	+42.44%
AMD	456.75	-3.49%	+113.27%	보잉	210.46	-1.75%	-3.07%
마이크론	910.43	-5.83%	+219.17%	넥스트에라	84.10	+0.5%	+6.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6,696.96	-3.12%	+58.92%	USD/KRW	1,383.60	-0.23%	-3.88%
코스피200	1,054.01	-3.85%	+73.93%	달러 지수	98.98	+0.18%	+0.67%
코스닥	813.33	+1.42%	-12.12%	EUR/USD	1.17	-0.13%	-0.7%
코스닥150	1,417.72	+1.75%	-8.38%	USD/CNH	6.72	+0.01%	-3.64%
S&P500	7,652.86	-0.28%	+11.79%	USD/JPY	159.11	+0.1%	+1.53%
NASDAQ	25,980.19	-0.76%	+11.78%	채권시장			
다우	53,417.16	+0.26%	+11.14%	채권	가격	DTD(bp)	YTD(bp)
VIX	15.85	+4.76%	+6.02%	국고채 3년	3.835	-2bp	+88.4bp
러셀2000	2,995.08	-0.76%	+20.68%	국고채 10년	4.327	-4.3bp	+94.2bp
필라. 반도체	11,423.17	-2.7%	+61.27%	미국 국채 2년	4.227	-0.9bp	+75.4bp
다우 운송	21,431.16	-0.64%	+23.47%	미국 국채 10년	4.696	-3.8bp	+52.9bp
상해종합	3,882.01	-0.59%	-2.19%	미국 국채 30년	5.226	-4.5bp	+38.2bp
항생 H	8,471.36	-1.89%	-4.96%	독일 국채 10년	3.253	-0.5bp	+39.8bp
인도 SENSEX	77,369.11	-0.22%	-9.21%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원자재	가격	DTD(%)	YTD(%)
Eurostoxx50	6,447.98	-0.22%	+11.34%	WTI	85.01	-2.35%	+49.27%
MSCI 전세계 지수	1,145.23	-0.4%	+12.87%	브렌트유	92.17	-2.35%	+51.47%
MSCI DM 지수	4,969.82	+0.45%	+12.18%	금	4,697.80	+0.37%	+4.46%
MSCI EM 지수	1,721.89	+1.29%	+22.61%	은	68.59	-1.35%	-2.85%
MSCI 한국 ETF	173.64	-2.64%	+78.61%	구리	660.50	+0.27%	+16.24%
디지털화폐				BDI	2,841.00	+1.79%	+51.36%
비트코인	78,929.51	+1.97%	-9.95%	옥수수	515.50	+1.38%	+11.94%
이더리움	2,474.89	+1.01%	-16.89%	밀	699.50	+0.04%	+23.86%
				대두	1,224.25	-1.23%	+15.01%
				커피	341.65	+5.89%	+8.6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8월 24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